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p.263-268, Sept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263
JCCT 2023-9-32

대북심리전 연구동향 분석
- 2000년~2023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2000 to 2023-

이정훈*, 송경재**

Jeong-Hoon Lee*, Kyung-Jae Song**

요 약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된 대북심리전 관련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북심리전 관련 논문의 부족한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나마 부족한 연구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북심리전이 전개되던 시기에만 미약하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 또한 정책제안과 심리전 매체로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심리전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등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대북심리전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주요어 : 심리전, 대북심리전, 연구경향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research, focusing on academic papers related to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studied from 2000 to 2023.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by year, field, and research method, we could feel the lack of papers related to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and the lack of research was also small only during the period when inter-Korean relations were strained. In addition, the research field is also limited to policy proposals and psychological warfare media, confirming the need to expand to more diverse fields considering the changing psychological warfare environment. In terms of the last research method, most of them were literature studies, so the need for quantitative research using interviews, surveys, and big data was also found. It is hoped tha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setting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which is still underway.

Key words : Psychological Warfare,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Research Trends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July 27, 2023 / Revised: August 22,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106rotcian@hanmail.net
Dept. of Psychology ,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Korea

Ⅰ. 서 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개시 일자를 2월 16일로 예측하여 동맹국들에게 알렸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러시아는 모든 것이 '가짜 뉴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16일 침공설을 부인했다. 사실과 다른 전쟁개시 일자의 예측과 경고는 미국의 오판이라기 보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 계획을 실제와 다르게 발표함으로써 정확한 예측보다 러시아를 심리적으로 당황스럽게 만들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민간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심리전(Phychological Warfare, PSYWAR)은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비무력적 전쟁이다. 주최 측이 대상 표적(상대 정부나 기구, 단체, 개인 등)의 지식, 감정, 의지, 태도 등 심리적 요소를 자극하여, 의도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획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의미한다[1]. 이러한 비 무력적 군사활동인 심리전은 적국에 대한 적국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어 전투 및 저항의지를 좌절시켜 전세를 주도할 수 있는 전쟁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심리전은 단순히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심리전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그 방향과 기조가 변화해 왔다.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대북심리전관련 연구는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연구의 경향성을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본론

1. 관련연구

이에 본 연구는 표 1처럼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대북심리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향후 군의 심리전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해당기간에 학술 연구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성 관련 주제 여부를 탐색해보았다. 그러나 대북 심리전 연구의 경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단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북심리전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경향성을 분석한 논문을 추가로 탐색한 결과 대북심리전 연구경향성 분석에 용이한 연구설계를 한 논문 2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2, 3].

표 1. 대북심리전 관련 연구의 연도별 현황
Table 1. Annual Status of Psychological Operations Study against North Korea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논문 수 비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논문 수 비율(%)	0 (0%)	**2** **(20%)**	**2** **(20%)**	0 (0%)	**2** **(20%)**	**1** **(10%)**	0 (0%)	0 (0%)	**1** **(10%)**	**1** **(1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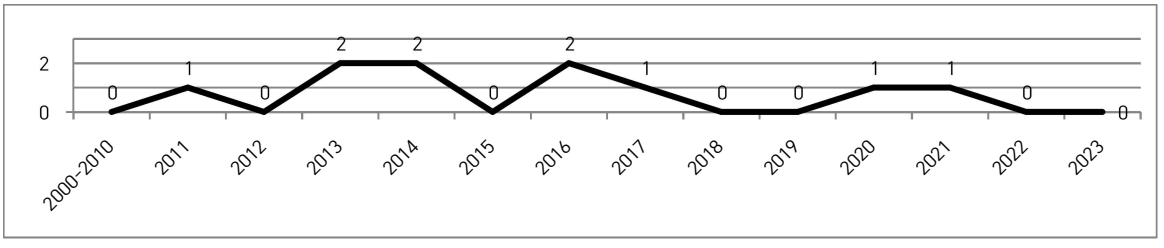

그림 1. 대북심리전 연구 2000-2023년까지 추이
Figure 1. The Trends of Psychological Warfare on NK from 2000 to 2023

첫 번째는 '감정치유 연구동향분석'이라는 논문과 두 번째는 '다문화장병 정책 연구동향분석'이라는 논문이었다. 전자는 15년 동안 관련 주제의 논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후자는 12년간의 관련 주제의 논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이 둘 모두 특정한 의미부여 없는 한정된 기간의 논문의 추이를 확인하는데 그쳐 연구자는 이 두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북심리전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정부의 대북기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기간을 진보 3개 정부와 보수 3개 정부를 아우를수 있도록 200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로 선정하면서 정부성격과 연구동향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연구동향분석과 차별성을 두었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대북심리전의 연구동향 파악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의 관련된 학술논문을 RISS, 스콜라, e-article, KISS, DBpia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도별, 연구분야별, 연구방법별로 분석하였다.

계량적인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학술논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가 '대북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학술논문을 우선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대북심리전과 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는 논문은 모두 포함하였다.

셋째,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심리전 매체, 정책제안, 적법성 등 대북심리전과 관련된 대상을 모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북심리전이 주제인만큼 국내 심리전을 다룬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3. 분석결과

1) 연도별 현황

대북심리전 연구관련 학술논문들의 연도별 발행현황으로 표 1에서와 같이 200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10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북심리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정부 성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북심리전이 시행되던 시기 위주로 그나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북심리전이 남북관계상의 이유로 중지되었을 때는 그러한 연구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가 축적되어 왔지만 연간 평균 1건도 안되는 사실은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북심리전'에 대한 관심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는 2013년, 2014년, 2016년과 같이 특정년도에 집중되었다. 해당 집중년도의 집권정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보수정부에 집중되었고 그 시기는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 지뢰도발 등 심리전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연구도 없었던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상호 비방중단 약속, 2004년 6월 4일 장성급 회담에서 심리전 방송 중단약속 등이 있던 시기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9.19 남북합의와 심리전 중단 지속의 분위기를 고려 연구의 필요성과 관심이 다시 저조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심리전국을 신설하고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는 현실을 볼 때 대북심리전 재개 가능성은 물론 기존 보수정부에서 처럼 관련 연구가 늘어날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해볼 수 있겠다.

2) 연구분야별 현황

주제별 연구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대북심리전에 대해서 '정책제안', 그리고 '심리전 효과'와 관련된 주제가 전체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심리전관련 매체'와 '대북심리전의 적법성'이 뒤를 이었다. 표 3은 대북심리전 관련 연도별 연구 주제 현황을 보여주는데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기조를 유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김대중, 노무현 정부당시에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관련 연구가 전무하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2010년 천안함 피격도발, 이어서 같은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로 대북전단 살포가 6년만에 재개되고 국방부와 별개로 탈북자 단체 주축으로 민간단체도 대북전단 살포전개를 하게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탓인지 대북심리전 연구가 이듬해인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분야 또한 대북 심리전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4].

표 2. 대북심리전 관련 정부별 연구현황

Table 2. Current Status of Government-Related Research on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구분	대북심리전 연구(건)	심리전관련 주요 이슈
김대중 정부(1998.2-2003.2)	0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기조유지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상호 비방중단 약속
노무현 정부(2003.2-2008.2)	0	• 2004년 6월4일 장성급 회담에서 심리전 방송 중단 약속
이명박 정부(2008.2-2013.2)	2	• 2010년 3월26일 천암함 피격, 11월23일 연평도 북한의 포격도발로 국방부 대북전단 살포 6년만에 재개 • 2010년이후 탈북자 단체 주축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전개
박근혜 정부(2013.2-2017.5)	6	• 2014년 10월10일 탈북단체 전단살포용 풍선에 북측 고사총발사와 우리군 대응사격 • 2015년 북한 지뢰도발로 2015년 8월 10일부 대북 확성기 재개
문재인 정부(2017.5-2022.5)	2	• 2018년 9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윤석열 정부(2022.5-현재)	0	•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 침투 사건 • 2023년 1월 4일 대통령 “北 영토 침범땐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지시” • 2023. 5월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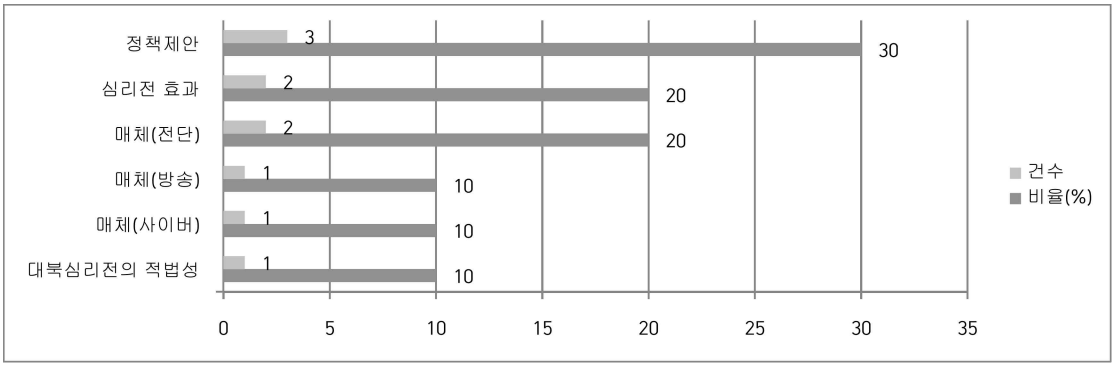

그림 2. 주제별 연구 현황 (건수, 비율%)
Figure 2. Current Status of Research by Subject (number of cases,ratio)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북심리전이 본격화되면서 부족하지만 연구가 누적되기 시작했는데 북한도 심리전을 수행하다보니 2009년 디도스 인터넷 공격과 2011년 농협 전산망 대란 등을 겪게되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2013년에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논문이 작성되기도 했다[5]. 2014년에는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 방안과 통일을 대비한 심리전 방안이라는 정책제안 성격의 논문 2편이 작성되었고[6, 7], 2015년에 연구가 없다가 2016년에 대북심리전의 적법성과 관련된 연구와 대북 심리전의 맞춤형 시행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 [8, 9]. 이후에는 2017년에 심리전 매체인 대북방송과 관련된 연구 1건, 2020년에는 심리전과 귀순자의 인과성에 대한 심리전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고 가장 최근 논문은 2021년에 심리전 매체인 전단을 다루는 논문이었다[10, 11, 12].

3) 연구방법 및 연구자 현황

연구방법면에서는 대상 논문 모두가 문헌연구가 대부분으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로 다변화 한다면 좀 더 다양한 분석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3 대북심리전 관련 연도별 연구 주제 현황

Table 3. Current status of annual Research on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연도/주제	정책제안	심리전 효과	매체(전단)	매체(방송)	매체(사이버)	대북심리전의 적법성	합계
2000~2010							
2011		1					1
2012							
2013			1		1		2
2014	2						2
2015							
2016	1					1	2
2017				1			1
2018							
2019							
2020		1					1
2021			1				1
2022							
2023							
건수	3	2	2	1	1	1	10
비율(%)	30	20	20	10	10	10	100

또한 10편 논문의 연구자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탈북자, 현역이거나 예비역 신분이 절반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관심있는 직종의 연구자들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연구의 양적, 질적부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국방부는 학계와 관련부서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등 연구용역연구인력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지금 이 순간에도 심리전은 진행되고 있다. 심리전의 정의가 서론에서 전술한 바 대로 대상 표적(상대 정부나 기구, 단체, 개인 등)의 지식, 감정, 의지, 태도 등 심리적 요소를 자극하여, 의도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획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볼 때, 최근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경각심을 주고 강한 한미동맹의 신호를 보내고자 2023년 7월 19일 대통령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방문한 행보 또한 대북심리전으로 볼 수 있다[12].

더구나 올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 심리전국을 신설하고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는 현실을 볼 때 대북 심리전 재개 가능성과 필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량도 부족하고 그마저도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연구의 단절과 지속이 반복되어 연속성이 없었다. 주제 또한 연구자체가 부족하다보니 다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연구방법도 문헌연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심리전 재개 가능성과 필요성이 증가하는 환경변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이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연구주제도 정책적인 제언, 심리전 매체이외에도 미래 심리전, 대북 심리전의 효과평가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또한 문헌연구 뿐 아니라 탈북자와 해 분야 전문가를 통한 심층인터뷰, 그간 탈북자들의 설문을 토대로 구축한 통일부의 빅데이터 활용 등의 양적 연구 방법의 시도도 향후 연구방향에 참고가 되길바란다.

마지막으로 대북 심리전 미실시 기간이 장기화 됨

에 따라 해당작전을 경험한 장병도 매우 부족하며, 해당 예산도 축소되어 다시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극복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아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야할 정책적인 제언이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향후 대북 심리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K. J. Song, “Military Psychology”, Seoul, Hakjisa. 2017
[2] H. R. Park, “Analysis of Emotional Healing Research Trends- 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2005 to 2020-”,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vol.7. pp.223-229. August. 2021. http://doi.org/10.17703/JCCT.2021.7.3.223
[3] S. J. Im and J. H. Lee, “Analysis of Multicultural Soldiers Policy Research Trends -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2010 to 2022-”,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vol.8. pp.87-92. September. 2022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87
[4] C. H. Kang,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Impact on the North Korean Regime”, JPI Reserch Series, Vol.19, pp.3-9, 2011
[5] H. K. Kwon, “Korea Army’s Strategy Against NK’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Threats”, A Master’s thesis at Sangji University, 2013
[6] N. Y. Kim, “Direction of Psychological Warfare in North Korea due to Environmental Change”, A Master’s thesis at Kyunghee University, 2014
[7] S. Y. Koh,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JPI, pp18-29, 2014
[8] S. H. Lee, “Legality of Psychological Operations Around the MDL: Focused on Whether to Violat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South-North Korea Agreement”, KIDA Jdps Vol.31, pp.73-99, 2016
[9] Y. K. Lee, “It is a psychological warfare tailored to the transition to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Military Journal, pp.28-33, 2016
[10]S. J. Cho, “Change of Radio Broadcasting to North Korea in Last Decade”, A Ph.D. thesis at University of Kookmin, 2017
[11]B. B. Lee, “Defec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the System of National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1960s and the Cold War Politics of Defection”, 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Vol59, pp.11-80, 2020
[12]D. K. Jang, “Is Private Sector-Led Leaflets to North Korea An Effective Means of Psychological Warfare?”,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 30, No.2, pp.29-57, 2021
[13]https://news.tf.co.kr/read/ptoday/2031670.htm